

세계정당연대의 원상복합인공로프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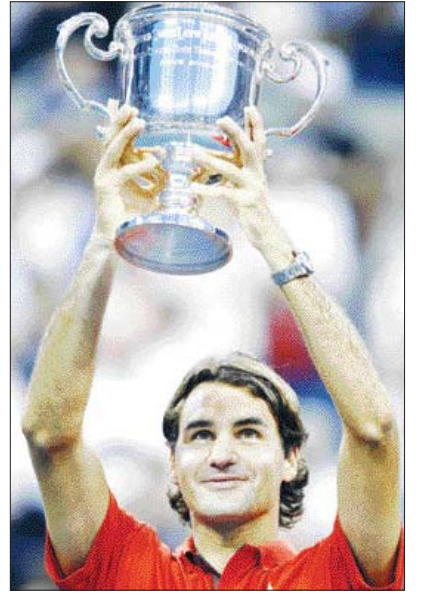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로 관통 (당첨 후 100% 인공로프 건설)
- 무전시 9월 이후 출발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www.hpdynasty.co.kr 0801-320-7700



■ 한국에 첫 금 '선물'...완도 출신 이윤리

총 잡은지 2년만에 세계 최고 명사수로

9일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사격 여자 50m 소총 3자세 결승에서 결선합계 676.9점으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이윤리(전남완도)가 조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페더러 대회 5연패 US오픈 테니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사진)가 시즌 마지막 그랜드슬램 대회인 US오픈테니스대회 정상에 올라 자존심을 회복했다. 페더러는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플러싱 메도 빌리진 킹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서 앤디 머레이(6위·영국)를 3-0(6-2 7-5 6-2)으로 꺾어 우승 상금 150만달러(한화 약 16억3천만원)를 획득했다. 1968년 오픈 시대가 열린 이후 처음으로 남자단식을 5년 연속 제패한 페더러는 최다 우승에서도 지미 코너스, 피트 샘프라스(이상 미국)의 5회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개인 통산 13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이다. /연합뉴스



12년 전 척수장애 딛고 일궈낸 인간승리
합계 기록 676.9점...장애인 세계新 달성

'완도 소녀'가 거머잡고 일을 내고 말했다. 제13회 베이징장애인 올림픽 화약소총 50m 3자세에 출전한 이윤리(34·전남완도·완도를 대아리)가 대회 나흘째인 9일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이윤리는 예선에서 세계신기록이자 패럴림픽 기록인 579점을 쏘아 1위로 예선을 통과한 이윤리는 결승에서도 한 발도 8점대를 맞추지 않은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면서 합계 기록(676.9점)에서도 장애인 세계신기록을 세우는 신기(神技)를 선보였다. 이 같은 엄청난 기록의 주인공이지만 이윤리가 사격에 입문한 지는 2년여에 불과하다. 이윤리는 완도여고 시절 응원단장을 할 정도로 쾌활한 소녀였다. 또 고교 졸업 때는 합기도 1단을 딸 정도로 운동에도 소질을 보여준 그녀는 평소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꿈꾸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닌 소녀였다. 고교 졸업 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는 꿈을 하나씩 꿰어나가던 이윤리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지난 1996년 7월 어느날,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그날 퇴근 길에 동료 차에 동승

했던 이윤리는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흉추골절상을 입었다. 1남 2녀중 장녀인 그녀가 장애를 겪으면서 3년동안 방황했던 시절 그녀의 집에서는 웃음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윤리는 스스로 현실을 인정하고 극복에 나섰다. 재활치료를 통해 탁구에 입문, 운동으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탁구를 5년정도 하며 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한 이윤리는 지난 2006년 초 대전 보훈병원에서 사격에 입문, 2년 만에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윤리는 효심이 지극하다. 그래서 이윤리는 이번 올림픽서 꼭 금메달을 따서 부모님 목에 걸어드리겠다고 다짐했고 그 다짐은 '금빛 총성'이라는 열매로 다가왔다. 이윤리는 경기 직후 "다친 뒤로 부모님께 항상 죄송했었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따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효도를 한 것 같아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아버지 이근수(59)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스스로를 이겨내고 '하루 씩'은 신념으로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 고마울 뿐이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이윤리 선수의 고향인 완도를 대아리에서 아버지 이근수(왼쪽)씨와 주민들이 9일 금메달 획득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금메달에 기뻐하는 사람은 이윤리만이 아니다. 바로 동갑내기 남자친구 이춘희씨. 이춘희씨는 이윤리를 2006년 1월 처음 만났다. 특전사 저격수 출신인 이씨는 군 복무 중 당한 부상으로 제대 후 대전보훈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여기에서 당시 사격에 막 입문하려던 이윤리를 만난 것. 첫 눈에 이윤리에 반한 이씨는 그 때부터 화약측 전문기사로서 이윤리의 연습에 많은 도움을 줬고 자연스럽

게 사랑을 키워갔다. 이씨는 이후 이윤리가 연습을 할 때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경기를 나갈 때나 항상 옆에서 곁을 지켜주며 이윤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미뤘었다. 올림픽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제 금메달의 꿈을 이룬 만큼 이씨는 더 이상 미룰거리지 않을 생각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이형택 세계랭킹 142위

이형택(32·삼성증권)이 9일(한국시간) 발표한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에서 8월25일자 보다 41계단 떨어진 142위가 됐다. 최근 무릎 부상으로 투어 대회에 많이 나서지 못했던 지난 해 US오픈 16강에 오르며 떨어졌던 랭킹 포인트가 빠져면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유봉래·고제철씨 '에이지 슈터' 기록

골퍼에게 최고의 영광인 '에이지 슈터'가 광주에서 잇따라 탄생(9번째, 10번째)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유봉래(주)신일가스 회장(73). 유 회장은 지난 7일 화순 무등산 컨트리클럽서 자신의 나이와 같은 타수인 73타를 쳐 평생 하기 어려운 대기록을 남겼다. 에이지 슈트(Age Shoot)는 18홀(파 72) 라운드를 자기 나이 이하 스코어로 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이런 기록을 낸 골퍼를 에이지 슈터라고 한다. 유 회장은 이날 지왕봉 코스서 34타, 인왕봉 코스서 39타로 합계 73타를 쳐 자신의 나이와 똑같은 타수를 기록했다. 유 회장은 이날 기록으로 10번째 에이지 슈터로 이름을 올렸다. 동반자는 부인 최영자씨와 장성수, 윤명희씨. 또한 지난 6월 25일에는 고제철(79) 금강기업주식회사 회장이 광주CC에서 자신의 나이와 같은 타수인 79타를 치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고 회장은 이날 동약코스(파 36·3.154m), 섬진강코스(파 36·3.171m)에서 합계 79타를 쳤으며 동약 5번홀(파 3·162m)에서는 버디를 기록하기도 했다. 고 회장은 이날 기록 작성으로 국내 9번째 에이지 슈터로 이름을 올렸다. 동반자는 임승남, 하대주, 김봉수씨.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허정무호, 오늘 밤 9시 북한과 한판승부

소장과 3인 전진 배치
北 '츄츄 수비' 뚫는다



김치우

신영록

이청용

원-이청용(서울)을 전방 공격라인에 배치하기로 결심했다. 북한의 츄츄 수비벽을 뚫기 위해선 빠른 측면 돌파와 과감한 몸싸움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젊은 선수들의 패기에 승운을 걸었다. 대신 경험이 풍부한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을 공격의 조율사로 내세웠고, 19살의 막내 기성용(서울)에게 2선 공격의 책임을 맡겼다. 또 중앙수비도 베이벡호와 올림픽대표팀에서 조직력을 다져온 김진수(서울)-강민수(전북) 듀오를 낙점하는 등 전반적으로 젊고 활기찬 팀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회관한 특집이 필요>=지난해 12월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허 감독은 사령탑 데뷔전에서 칠레에 패배를 당한 뒤 2연승으로 상승세에 오르는 듯 했지만 이후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비랑에 돌리고 말았다. 다행히 최근 3경기에서 2승1무를 기록, 최근 10경기 연속 무패(5승5무)로 승리와 무승부 경기가 균형을 맞춰줬지만 여전히 빈약한 골 결정력은 허 감독의 아킬레스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허정무호에 필요한 것은 득점이다. 자칫 북한과 최종예선 첫 경기부터 좋지 않은 결과를 낸다면 허 감독은 팬들의 '사비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의 역습을 막을 방도는>=허정무 감독은 북한의 정대세(가와사키)-홍영조(로소토프)-문인국(4·25체육단)을 경계대상 선수로 꼽고 수비수들에게 '맞춤방어'를 주문했다. 수비훈련에서 북한의 원톱에 대비해 김진규에게 정대세의 전담 방어를 맡겼고, 오범석과 김동진에게도 홍영조와 문인국의 좌우 측면침투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은 지난 2월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전방에 홀로 남아있던 정대세의 역습에 골을 내줬던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 김남일(빛셀 고베)을 중심으로 김진규-강민수 중앙 수비라인이 정대세를 팽공 튀는 동시에 빠르고 섬세한 전진패스로 재역습에 나서는데 전술이 승리의 핵심요소다. 최종예선 2차전은 10월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홈 경기다. 새로운 엔트리 구성은 이번 북한전에서 빠져선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비롯해 설기현(풀럼)과 이영표(도르트문트) 등 경험이 풍부한 해외파 선수들의 재발탁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치우·신영록·이청용 '스리톱'
北 정대세·홍영조 대상 '맞춤방어'



이번에는 시원하게 이길 수 있을까. 허정무호 출발 이후 답답한 공격과 느슨한 수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축구팬들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기대만 걱정반'의 심정이다. 축구대표팀은 10일 밤 9시(한국시간) 중국 상하이 훙커우스타디움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6위의 북한과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1차전 경기를 치른다. <새내기들의 힘>=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르면서 허정무 감독은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최종예선에 앞서 올림픽대표팀에서 활약했던 23세 이하 '영건'들을

8명이나 발탁하는 실험을 단행했다. 이 중 3차 예선부터 합류했던 이청용(서울)은 요르단과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넣었고, 골키퍼 정성룡은 '제2의 이운재'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다. 허 감독은 북한전에 대비해 김치우(서울)-신영록(수